

한국농수산대학 전공심화과정 졸업생의 영농활동실태조사

황인욱¹, 주진수², 김종숙², 오대근², 송천영^{2*}

¹전북대학교 CK-1 대학특성화사업단, ²한국농수산대학

A Survey on Farming Activities of Graduates for Intensive Major Course of Korea Nation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I. U. Hwang¹, J. S. Joo², J. S. Kim², D. G. Oh² and C. Y. Song^{2*}

¹National of Chunbuk National University, CK-I Project Team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4896, Korea

²Korea Nation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1515, Kongjwipatjwi-ro,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54874, Korea

Abstract

This is a survey on farming activities of intensive major course's graduates of Korea Nation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Fisheries(KNCAF). Above all, major characteristics of graduates of intensive major course cases are as follows. First, They make an effort to secure of agriculture competitiveness through an increase in farm size, and then strive for their specialty. Second, They are leading value based agriculture through an innovations in techniques.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intensive major course's examples have the following features: aim at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actively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continued research activity, community reinvigoration and leading development of agriculture through active network. Finally, This result in various certifications and awards(environment friendly certification, HACCP certification, non antibiotic/pesticide-free certification, organic certification etc.). Therefore, there are necessity of various intitutional and political supports in order that they grow the core people and leader of farm village.

Key words : Korean nation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Intensive major course, Farming activity, Young farmer

* 교신저자 한국농수산대학 songcy@korea.kr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1년부터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한농대 전공심화과정은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양성육성을 목표로 한다. 2011년 56명의 졸업생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까지 총 35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들은 향후 현장실습 등 후계자 교육에 참여하는 경영이양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졸업생들이 누적됨에 따라 최근에는 이들의 영농정착 성공사례가 각종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는 등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졸업 후 농촌으로 귀귀함으로써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히 농업 현장에 젊은 일꾼이 수혈되는 것 이상의 효과를 지닌다. 체계적인 농업 교육을 바탕으로 한 과학영농의 확대부터 고령화 된 농촌사회에서 지역의 핵심 리더로서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에 활력에 기여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이들의 영농정착 성공과정은 농업후계인력 육성정책에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공심화과정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영농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영농특징을 살피고, 나아가 졸업생 지도에 알맞은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가. 조사설계 및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초기에는 전공심화졸업생 전체에 대한 온라인 전수조사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일부 졸업생들의 소재파악의 어려움과 온라인 조사의 약점

인 응답회수율 등의 한계로 인해 1차 면접조사와 2차 온라인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이에 따라 1차 면접조사는 현재 전공심화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2017년 1학기 기준)을 대상으로, 2차 온라인조사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차 조사는 2017년 5월 8일~31일까지 약 4주 간, 매주 각 학과별 전공심화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2차 조사는 2017년 6월 9일~30일까지 약 3주 간, 각 학과에서 추천을 받은(소재파악이 가능하고, 현재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졸업생 중심으로 추천을 받음) 졸업생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진행하였다.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이 한농대 졸업생들의 '영농활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사과정에서 현재 영농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학생은 조사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말산업학과의 경우, 2017년 기준 전공심화과정 졸업생이 아직 배출되지 않았으므로 역시 본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면접조사 70명, 온라인 조사 1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온라인조사 응답회수율은 39.2%(40명)였다. 이 중 본 연구에 사용한 분석유효표본은 107명으로,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나.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①졸업생들의 영농현황 및 영농형태 파악, ②영농관리 방식 및 영농성과 파악, ③지속적인 학습활동 및 사회활동 파악, ④농업·농촌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등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농현황 및 영농형태 부문에서는 '영농규모', '영농소득 및 관리방식', '사업장의 경영방식 및 경영형태', '작물재배(혹은 사육) 형태', '영농유형', '부모와의 갈등 및 원인', '농업인으로서 자기정체성' 등 전반적인 영농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Table 1.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tudied

N=107, 단위(명, %)

전공	식량작물학과	15(14.0)	주재배 (사육) 품목	식량작물	17(15.9)	
	축산	대가축학과		7(6.5)	축산	21(19.6)
		중소가축학과		12(11.2)	특용작물	7(6.5)
	과수학과	10(9.3)		버섯	9(8.4)	
	채소학과	13(12.1)		과수	11(10.3)	
	특용작물학과	14(13.1)		채소	15(14.0)	
	버섯학과	10(9.3)		화훼	10(9.3)	
	화훼학과	13(12.1)		조경	6(5.6)	
	산림조경학과	7(6.5)		수산양식	7(6.5)	
수산양식학과	6(5.6)	기타	4(3.7)			
지역	경기/수도권	23(21.5)	성별	남자	75(70.1)	
	강원권	3(2.8)		여자	32(29.9)	
	충청권	18(16.8)	결혼 여부	미혼	82(76.6)	
	영남권	15(14.0)		기혼	25(23.4)	
	호남권	44(41.1)	나이	20대	69(64.5)	
	제주	4(3.7)		30대	36(33.6)	
				40대	2(1.9)	
영농 경력*	1년미만	21(19.6)	*“영농경력=조사년도(2017)-졸업년도”로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영농경력은 3.4년임.			
	1년 이상~5년 미만	55(51.4)				
	5년 이상~10년 미만	24(22.4)				
	10년 이상	7(6.5)				

Table 2. The contents of investigation on the farming conditions of the graduates

구 분	설 문 내 용
영농현황 및 영농형태	-영농규모 -영농소득(조수입-경영비) 및 관리 -사업장 경영다각화 및 경영형태 -작물재배(혹은 사육) 형태 -영농유형 -가족경영협정 여부 -부모와의 갈등 여부 및 원인 -농업인으로서 자기정체성
영농관리 및 성과	-사업장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 -수확물의 유통 및 판매 방식 -인증 및 수상성과 -농경영 상의 애로사항
학습활동 및 사회활동	-전공심화과정 외 지속적인 학습활동 노력 -대학원 진학 여부 -한농대 졸업생들의 경쟁력 -모임/단체 소속 및 활동 -주관적 농업인정체성
농업·농촌에 관한 인식	-자녀에게 농업 승계 의사 여부 -농업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향후 농업·농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중요도 -지역사회 생활에 있어서 애로사항

둘째, 영농관리 및 영농성과 부문에서는 ‘사업장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 ‘수확물의 유통 및 판매 방식’, ‘인증 및 수상성과’, ‘농업경영 상의 애로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학습활동 및 사회활동 부문에서는 ‘전공심화과정 외 지속적인 학습활동 노력’, ‘대학원 진학 의사’, ‘한농대 졸업생들의 경쟁력’, ‘모임/단체 소속 및 활동’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농인들이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기여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끝으로 농업·농촌에 관한 인식 부문에서는 ‘자녀에게 농업 승계 의사’, ‘농업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향후 농업·농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중요도’ 등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한농대 졸업생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II. 한농대 전공심화과정 일반 현황

1. 추진배경

한국농수산대학은 고등교육법 제48조(수업연한) 및 제50조(학위의 수여)의 규정에 따른 3년제 전문대학으로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업 분야에서의 무한경쟁 시대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의 지식 경쟁력 제고에 대비하여 고등교육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공심화과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설치법 제정(2006년 9월) 당시 고등교육법 체제에서는 전문대학에 설치한 전공심화과정은 비학위 과정으로 운영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었으나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예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일정 학점 및 동일계열 경력자를 대상으로 학사학위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2010년)하게 되었다.

학사학위수여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자들에게 직업교육 및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문 후계농어업경영인 양성이라는 한국농수산대학의 설립 취지에 적합한 학습과정이다.

2. 교육과정 및 교과과정

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전체공통과목과 계열공통과목의 공통과정과 전공심화과목의 전문과정으로 구분한다. 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 편성은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며 전문 학사과정의 교육과 연계된 전공별 심화이론에 중점을 두어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 할 수 있는 생산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또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의 정확한 이해와 국제적 동향의 분석능력을 배양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교육방식은 On-line(e-learning)과 Off-line(출석수업)을 병행하는 혼합형 수업방식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과편성방향은 새로운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교과를 중심으로 수요자의 요구수준을 반영한 다양한 교과편성을 하여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심화이론 및 생산기술 등 신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과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교과목은 2~3학점 단위로 개설하고 있으며, 매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심화과정의 교과편성은 다음 표와 같다.

Table 3. The curriculum of intensive major course

구분	교양공동	전공필수	전공선택
학점	4	12	4

* 학기당 10학점 이상 이수

3. 전공심화과정 졸업생 현황

전공심화과정은 2014년까지는 학과별 격년제로 과정을 운영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이를 없애고, 모든 전공학과에서 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전공심화과정 개설 초기에는 모든 학과에서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시설 및 교원 확보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학과 당 학생 6~8명으로 운영하기에는 예산 등도 문제가 있어 부득이 매년 3~4개 학과에서 개설하여 격년제로 운영하였다. 2015년부터는 학과 증설에 따른 심화과정 정원 및 교원 증원에 따라 전 학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 매년 개설함에 따라 학생 수도 학과당

15명 이상에서 15명 이하로 선발할 수 있어 수준 높은 심화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4학년도에는 버섯학과, 2017학년도에는 말산업학과와 수산양식학과에 심화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한 결과, 특용작물학과, 화훼학과, 대가축학과 3개 학과에서 2011학년도에 56명의 첫 학사학위를 수여한 이래 2018년까지 모든 전공학과에서 총 506명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2000년 209명의 졸업생을 처음으로 배출한 한농대는 현재까지 4,73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이들 중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받은 졸업생은 506명으로 전체 졸업생 대비 10.7% 이다.

Table 4. The yearly distribution of major for graduates

연도	인원	식량작물	특용작물	버섯	채소	과수	화훼	산림조경	대가축	중소가축	말산업	수산양식
2011	56		19				18		19			
2012	58	15			13	15				15		
2013	58		19				23		16			
2014	54	15			8	15				16		
2015	52		9	5			22		16			
2016	74	14	5	6	10	8	11		11	9		
2017	68	9	8	8	3	16	8		9	7		
2018	86	10	9	8	7	9	8	7	9	8	5	7
계	506	62	69	27	42	63	90	7	80	55	5	7

Ⅲ. 조사분석 결과**1. 영농현황 및 영농형태****가. 영농유형 및 영농활동에 있어서 갈등**

영농유형의 범주는 크게 부모협농과 독립경영으로 나누어지며, 독립경영은 다시 승계농과 창업

농으로 나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협농’이 5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응답자의 연령이 대부분 20대인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연령별 영농유형 중 20대

에서 ‘부모협농(63.8%)’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한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모협농에서 승계농, 창업농 등으로 분포가 확대되고 있다.

Table 5. Farming types by age for graduates

(단위: 명, %)

연령	부모협농	독립경영		기타	전체
		승계농	창업농		
20대	44(63.8)	10(14.5)	10(14.5)	5(7.2)	69(100)
30대	18(50.0)	11(30.6)	4(11.1)	3(8.3)	36(100)
40대	0(0.0)	0(0.0)	2(100)	0(0.0)	2(100)
전체	62(57.9)	21(19.6)	16(15.0)	8(7.5)	107(100)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음.

이를 다시 영농경력별로 살펴보면, 영농경력이 짧을수록(5년 미만) 부모협농의 비율이 높다가 일정한 영농경력이 쌓이면(5년 이상) 점차 승계농, 창업농 등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부모세대가 이루어 놓은 탄탄한 영농기반 아래 대학에서 습득한 전문적 농업지식을 결합하여 농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아가고 있다(Table 6).

Table 6. Farming types by farming years for graduates

(단위: 명, %)

영농경력	부모협농	독립경영		기타	전체
		승계농	창업농		
1년 미만	10(47.6)	6(28.6)	3(14.3)	2(9.5)	21(100)
1년 이상 ~5년 미만	40(72.7)	5(9.1)	7(12.7)	3(5.5)	55(100)
5년이상 ~10년미만	10(41.7)	9(37.5)	4(16.7)	1(4.2)	24(100)
10년이상	2(28.6)	1(14.3)	2(28.6)	2(28.6)	7(100)
전체	62(57.9)	21(19.6)	16(15.0)	8(7.5)	107(100)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음.

한편 부모협농(62명/57.9%) 중 ‘가족경영협정’을 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의 절반을 약간 넘는 응답자들이 ‘하고 있다(56.5%)’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 정도는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이러한 것들은 때때로 영농현장에서 부모-자녀와의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로 응답자의

Table 7. The management agreement of cooperative agriculture with parents

(단위 : 명, %)

부모와의 경영협정 여부	빈도	퍼센트
하고 있다	35	56.5
하고 있지 않다	27	43.5
전체	62	100

Table 8. Conflicts with parents in farming activities (단위 : 명, %)

부모와의 갈등 여부	빈도	퍼센트
겪고 있다	37	34.6
없다	70	65.4
전체	107	100

약 1/3 가량은 영농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부모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는 ‘부모님이 자신의 영농 방식만을 고집하여, 내가 배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21.6%)’라는 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승계는 하였으나 형식적 승계일 뿐, 부모님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17.1%)’, ‘경제적 주도권이 작거나 없다(13.5%)’, ‘사생활이나 여가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13.5%)’ 등이 뒤를 이었다(Table 9).

Table 9. The main cause of conflict with parents(multiple responses) (단위 : 명, %)

부모와의 갈등 원인	빈도	퍼센트
부모님이 자신의 영농방식만을 고집하여, 내가 배운 영농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움	24	21.6
승계는 하였으나 형식적 승계일 뿐, 부모님의 영향력이 여전히 큼	19	17.1
나의 경제적 주도권이 작거나 없음	15	13.5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여가 활동 등을 인정하지 않음	15	13.5
농장운영에 있어서 부모님과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음	13	11.7
부모님이 나를 독립적/전문적인 농업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일하는 것을 못마땅해 함	12	10.8
노동의 대가에 대한 지불이 명확하지 않음	9	8.1
부모님이 영농활동을 반대함	1	0.9
기타	3	8.1
전체	111	100

나. 영농의 규모화

한농대 전공심화과정 졸업생들의 평균 영농규모는 다음의 Table 10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소유농지가 임차농지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식량작물, 수산양식 등의 분야에서는 임차농지가 소유농지보다 약 1.6배 정도 많게 나타났다(Table 10).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133,057㎡로 영농규모가 가장 크며, 이어 20대 90,428㎡, 30대 71,5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와 40대는 소유농지가 임차농지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30대는 소유보다 임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20대의 소유농지 및 영농규모가 큰 이유는 이미 영농기

Table 10. The average scale of farmland owned or leased by major

학 과	(단위 : m ²)		
	소유	임차	전체
식량작물	111,106	187,804	298,911
축산	49,312	2,676	51,988
특용작물	122,811	1,557	67,226
버섯	18,211	-	18,211
과수	16,766	9,689	28,262
채소	20,081	7,263	27,345
화훼	10,378	828	11,206
산림조경	179,897	5,000	95,964
수산양식	44,600	75,714	120,314
기타	5,619	-	5,619
전체	55,587	37,790	84,872

반을 확고히 다져놓은 부모세대의 영향으로 여겨진다(Table 11).

Table 11. The average farming size by age

(단위 : m ²)			
연 령	소 유	임 차	전 체
20대	70,455	33,451	90,428
30대	24,164	46,829	71,545
40대	108,264	24,793	133,057
전체	55,587	37,790	84,872

한편 전공심화 졸업생들의 영농규모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전국 일반 농가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모든 분야에서 한농대 전공심화 졸업생들의 평균 농지면적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량작물의 경우 전체 농지면적은 전국농가에 비해 약 14배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 분야 역시 전국 농가 평균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았으며, 과수/채소는 약 2배 등 전반적으로 한농대 전공심화 졸업생들의 영농규모가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전공심화과정 졸업생들은 규모화 전략을 통해 농업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Table 12).

Table 12. The farming size of the Korean farmer or the graduates

(단위: m ²)		
구 분	전국 농가평균	한농대 전공심화 졸업생 평균
식량작물 (수도작)	20,970	298,911(270,419)
축산	17,427	51,988
특용작물	8,263	67,226
과수	14,314	28,262
채소	11,931	27,345
화훼	10,536	11,206

*출처: 황인옥 외(2017).

다. 영농소득 및 관리

전공심화과정 졸업생들의 영농소득(조수입-경영비)은 '1억 이상~3억 미만'이 26.2%, '7천 만원 이상~1억 미만'이 18.7%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공심화과정 졸업생들의 평균 영농소득은 '약 7천 만원에서 3억원' 사이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즉, 4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약 390만원(70% 기준)이라고 했을 때, 연소득을 약 4,600만 원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데, 한농대 전공심화과정 졸업생들의 영농소득은 이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농대 전공심화 졸업생들의 약 절반 가까이는 오직 영농활동만으로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보다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6.5배에 이르기까지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농유형별로 살펴본 영농소득에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부모협농'이나 '승계농'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농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창업농'의 경우는 연평균 영농소득이 '약 1천 만원~2천 만원 미만'으로 매우 영세한 형편이다(Table 13).

영농경력 1년 미만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연평균 영농소득이 5천 만원 미만에 머물러 있다. 영농경력이 짧는데 1억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는 앞서 살펴본 부모협농의 영향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영농경력이 5년 이상 이어지면 비교적 안정적인 영농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Table 13. Agricultural income by farming type(gross income-management expenses)

	Agricultural income by farming type(gross income-management expenses)											(단위: 명, %)	
	1천 미만	1천이상 ~2천미만	3천이상 ~5천미만	5천이상 ~7천미만	7천이상 ~1억미만	1억이상 ~3억미만	3억이상 ~5억미만	5억이상 ~7억미만	7억이상 ~10억미만	10억 이상	전체		
부호협농	6(9.7)	5(8.1)	3(4.8)	3(4.8)	13(21.0)	21(33.9)	5(8.1)	4(6.5)	0(0.0)	2(3.2)	62(100)		
승계농	0(0.0)	0(0.0)	5(23.8)	3(14.3)	5(23.8)	3(14.3)	2(9.5)	1(4.8)	1(4.8)	4(4.8)	21(100)		
창업농	3(18.8)	4(25.0)	2(12.5)	1(6.2)	2(12.5)	2(12.5)	2(12.5)	0(0.0)	0(0.0)	0(0.0)	16(100)		
기타	3(37.5)	1(12.5)	1(12.5)	1(12.5)	0(0.0)	2(25.0)	0(0.0)	0(0.0)	0(0.0)	0(0.0)	8(100)		
전체	12(11.2)	10(9.3)	11(10.3)	8(7.5)	20(18.7)	28(26.2)	9(8.4)	5(4.7)	1(0.9)	3(2.8)	107(100)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음.

Table 14. Agricultural income by farming year(gross income-management expenses)

	Agricultural income by farming year(gross income-management expenses)											(단위: 명, %)	
	1천 미만	1천이상 ~2천미만	3천이상 ~5천미만	5천이상 ~7천미만	7천이상 ~1억미만	1억이상 ~3억미만	3억이상 ~5억미만	5억이상 ~7억미만	7억이상 ~10억미만	10억 이상	전체		
1년미만	4(19.0)	4(19.0)	2(9.5)	2(9.5)	4(19.0)	3(14.3)	2(9.5)	0(0.0)	0(0.0)	0(0.0)	21(100)		
1년이상~ 5년미만	7(12.7)	4(7.3)	6(10.9)	6(10.9)	9(16.4)	15(27.3)	2(3.6)	5(9.1)	0(0.0)	1(1.8)	55(100)		
5년이상~ 10년미만	1(4.2)	2(8.3)	3(12.5)	0(0.0)	6(25.0)	6(25.0)	3(12.5)	0(0.0)	1(4.2)	2(8.3)	24(100)		
10년이상	0(0.0)	0(0.0)	0(0.0)	0(0.0)	1(14.3)	4(57.1)	2(28.6)	0(0.0)	0(0.0)	0(0.0)	7(100)		
전체	12(11.2)	10(9.3)	11(10.3)	8(7.5)	20(18.7)	28(26.2)	9(8.4)	5(4.7)	1(0.9)	3(2.8)	107(100)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음.

영농소득의 주요 소유자는 ‘부모님(혹은 배우자)’소득이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높았으며, ‘본인+부모님(혹은 배우자) 소득’ 31.8%, ‘본인 소득’ 2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5. An agricultural income of the graduate or parents (단위 : 명, %)

영농소득 주요 소유자	빈 도	퍼센트
본인 소득	32	29.9
부모님(혹은 배우자) 소득	41	38.3
본인+부모님(혹은 배우자) 소득	34	31.8
전체	107	100

영농소득의 관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모님(혹은 배우자)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마다 용돈수준으로 받는 경우(28.0%)’와 ‘본인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경우(27.1%)’가 극과 극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

시 말해 한농대 전공심화과정 졸업생들의 경우, 약 1/4 이상이 영농활동에 있어서 자신이 전혀 경제적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는 영농활동에 있어서 부모-자식 간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Table 16. The management of agricultural income (단위 : 명, %)

영농소득 관리 방법	빈 도	퍼센트
전적으로 내가 다 관리	29	27.1
부모님(혹은 배우자)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월급을 받음	24	22.4
부모님(혹은 배우자)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마다 용돈수준으로 받음	30	28.0
부모님(혹은 배우자)과 내가 공동으로 관리	19	17.8
기타	5	4.7
전체	107	100

2. 영농관리 및 성과

가. 경영다각화 도모

앞으로의 농업은 1차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융·복합되고, 확대될 것이다(라승용, 2015). 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 농업·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업의 6차산업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것은 농업이 단순히 농산물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가공/유통/관광 등 2차·3차 산업과의 연계 또는 융·복

합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더불어 농촌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역할까지 요구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유학열, 2013). 이에 대한 한농대 전공심화과정 졸업생들의 대응은 어떠한가?

분석결과 응답자의 2/3 가까이가 ‘작물재배 및 사육에만 전념(68.2%)’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가공산업(15.9%)이나 관광/체험프로그램(7.5%) 등 2차, 3차 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여건

상 현재는 작물재배에만 전념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농가들은 2차, 3차 산업으로의 진행을 준비 중이다. 특히 버섯이나 특용작물 분야는 가공산업을 통해, 채소, 과수 분야는 관광/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경영의 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다.

Table 17. Diversification of business establishment (단위 : 명, %)

경영다각화 방안	빈도	퍼센트
작물재배 및 사육에만 전념	73	68.2
가공산업으로의 발전 도모	17	15.9
관광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8	7.5
기타	9	8.4
전체	107	100

Table 18. The method of distribution and sale of crops(multiple responses) (단위 : 명, %)

수확물 유통 판매방식	빈도	퍼센트
도매시장/경매	50	16.2
개인소비자 직거래	50	16.2
소매	29	9.4
중간도매상	26	8.4
농협/정부 공공수매	25	8.1
전자상거래	19	6.1
계약재배	18	5.8
조합 등을 통한 협동판매	15	4.9
대기업/대형마트(민간)	14	4.5
농장내 직판장	12	3.9
로컬푸드 매장	10	3.2
해외수출	8	2.6
산지유통센터(APC)	7	2.3
친환경 전문점 판매	7	2.3
생협판매	7	2.3
RPC 운영	2	0.6
기타	10	3.2
전체	309	100

나. 수확물의 유통 판매방식

수확물의 주된 유통 및 판매방식으로는 ‘도매시장/경매(16.2%)’와 ‘개인소비자 직거래(16.2%)’가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도 ‘소매(9.4%)’나 ‘중간도매상(8.4%)’, ‘농협/정부의 공공수매(8.4%)’ 등의 방식으로 유통 및 판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8).

다. 사업장의 경영개선 노력

한농대 전공심화과정 졸업생들은 농업환경 변화의 트렌드에 맞게 영농현장에서 다양한 경영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판매/유통망 확보(15.3%)’와 ‘품질관리(15.0%)’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영농의 과학화·첨단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록관리(10.6%)’ 부문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외에도 ‘시설확대(9.3%)’나 ‘기계화(9.0%)’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9).

Table 19. Efforts to improve management in the workplace(multiple responses) (단위 : 명, %)

사업장 경영개선 방안	빈도	퍼센트
판매/유통망 확보	49	15.3
품질관리	48	15.0
기록관리(영농기술관련 일지 작성 등)	34	10.6
시설확대	30	9.3
기계화	29	9.0
브랜드화(자체브랜드 개발 등)	23	7.2
홍보강화(SNS, 블로그, 홈페이지 등)	23	7.2
신기술도입	14	4.4
자금관리(회계일지 작성 등)	13	4.0
농산물 가공	12	3.7
영농인력 충원	12	3.7
영농자금 확보	11	3.4
농장경관조성	7	2.2
체험프로그램 운영	6	1.9
직원복지	5	1.6
직판장 설치	2	0.6
기타	3	0.9
전체	321	100

라. 친환경농업 지향과 인증 및 수상 성과

변화하는 농업환경에서 농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는 친환경 농업 시스템이라고 본다. 특히 농산물 시장의 주도권이 점차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소비자들의 고급화에 대한 욕구는 축산 및 과수 등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이어지고, 이와 함께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박민선, 2008: 5). 이러한 추세는 한농대 전공심화과정 졸업생들의 작물재배 방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작물재배(혹은 사육)의 주된 형태로는 ‘관행농업(37.4%)’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친환경농업(29.9%)’의 비율이 전체의 1/3 정도로 적지 않고, ‘관행+친환경농업(25.2%)’의 비율을 합하면 졸업생들의 친환경 농업 지향은 오히려 관행농업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Table 20. The style of cultivation of crops
(단위 : 명, %)

작물재배방식	빈도	퍼센트
관행농업	40	37.4
친환경농업	32	29.9
관행농업+친환경농업	27	25.2
기타	8	7.5
전체	107	100

이러한 노력들은 각종 인증 및 수상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조사대상자 중 인증 및 수상경력이 있는 농가는 53개(49.5%)로, 절반 정도가 다양한 인증획득과 수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개 ‘무농약 인증(18.8%)’, ‘무항생제 인증(17.6%)’, ‘우수농산물(GAP)인증(17.6%)’, ‘HACCP 인증(15.3%)’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친환경 재배에 대한 관심

이 더욱 확대되고, 농가들의 노력이 더해지면 이러한 인증과 수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21).

Table 21. Accreditation and award performance(multiple responses)
(단위 : 개, %)

인증 및 수상	빈도	퍼센트
무농약 인증	16	18.8
무항생제 인증	15	17.6
우수농산물(GAP) 인증	15	17.6
HACCP 인증	13	15.3
유기농산물 인증	7	8.2
유기농 인증	6	7.1
농산물이력추적관리	5	5.9
유기가공식품 인증	2	2.4
유기축산물 인증	1	1.2
기타(지자체 등 수상)	5	5.9
전체	85	100

*응답자 중 인증 및 수상경력이 있는 농가는 53개 (49.5%)임.

Table 22. Continuous learning activities outside of intensive major course (multiple responses)
(단위 : 명, %)

학습활동 노력 방안	빈도	퍼센트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교류	62	18.3
한농대 지도교수의 자문	56	16.6
해외연수/선진농가 방문	38	11.2
자격증 취득	34	10.1
도 기술원과의 교류	26	7.7
개인연구모임 조직	25	7.4
학회/세미나 참석	23	6.8
전문가 컨설팅	23	6.8
농촌진흥청과 교류	20	5.9
현장실습지도교수의 자문	17	5.0
민간 연구소와 교류	5	1.5
기타	9	2.7
전체	338	100

*전공심화과정 외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103명(96.3%)임.

3. 지속적인 학습활동 및 사회활동

가. 전공심화과정 외 지속적인 학습활동 노력

한농대 졸업생들은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는 전공심화과정 졸업생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이 졸업 후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교류(18.3%)’, ‘한농대 지도교수의 자문(16.6%)’, ‘해외연수/선진농가 방문(11.2%)’ 등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특히 ‘한농대 지도교수의 자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졸업후에도 학교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22).

나. 대학원 진학 의사

전공심화과정을 수강하고 있거나 졸업한 학생들의 상당수(65.4%)가 과정 후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농대 전공심화과정이 본연의 목적이 희석되어 ‘4년제 대학 졸업장 획득 및 대학원 진학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Table 23).

Table 23. The intention of going to grad school after graduation of intensive major course (단위 : 명, %)

대학원 진학 계획	빈도	퍼센트
대학원에 진학할 것이다	70	65.4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을 것이다	37	34.6
전체	107	100

다. 한농대 졸업생의 경쟁력

한농대 전공심화과정 졸업생들은 ‘다양한 동문 네트워크의 활성화(25.6%)’를 한농대 졸업생들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았다. 뒤를 이어 ‘최신 농

업정보 습득력(13.8%)’,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참여(13.4%)’, ‘안정적인 영농기반(10.9%)’, ‘높은 농업기술 수준(10.6%)’ 등을 경쟁력으로 꼽고 있다(Table 24).

Table 24. KNCAF graduate's competitive advantage(multiple responses)

졸업생의 경쟁력 요인	(단위 : 명, %)	
	빈도	퍼센트
다양한 동문 네트워크의 활성화	82	25.6
최신 농업정보 습득력	44	13.8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참여	43	13.4
안정적인 영농기반	35	10.9
높은 농업기술 수준	34	10.6
종합적인 경영능력(생산/가공/판매 등)	23	7.2
최신 농업정책 활용 능력	21	6.6
신기술 활용능력	16	6.6
지역(마을)사회의 핵심인력	16	5.0
기타	6	1.9
전체	320	100

Table 25. Meeting and group membership (multiple responses) (단위 : 명, %)

소속 모임 및 단체	빈도	퍼센트
한농대 동문(동창)회	60	21.2
4-H	53	18.7
연구모임	30	10.6
작목반	23	8.1
농축수산업 협동조합	22	7.8
농업경영인 연합회	18	6.4
계모임	18	6.4
자선/봉사모임	18	6.4
청년회	14	4.9
반상회 등 이웃모임	10	3.5
향우회(동향사람모임 등)	8	2.8
농민회	3	1.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	0.4
기타	5	1.8
전체	283	100

*응답자의 91명(85.0%)이 적어도 1개 이상의 모임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음.

라. 모임/단체 소속 및 활동

모임/단체 소속 여부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91명(85.0%)이 적어도 1개 이상의 모임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농대 졸업생들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다양한 동문네트워크’를 꼽을 것을 반증하듯, 응답자들은 ‘한농대 동문(동창)회(21.2%)’에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었다. 그 외에 ‘4-H(18.47%)’, ‘연구모임(10.6%)’, ‘작목반(8.1%)’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5).

그러나 동문 네트워킹을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고, 동문(동창)회에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참여도에 있어서는 매우 저조한 결과를 보인다. 응답자들은 정작 참여도면에 있어서는 ‘계모임(76.38점)’, ‘자선/봉사모임(75.00점)’, ‘연구모임(72.50점)’ 등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한농대 동문(동창)회’에 대한 참여도는 53.75점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졸업생들이 한농대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은 한농대 동문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 할 제도적 장치 및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Table 26).

Table 26. Meeting and group participation for the graduates (단위 : 점)

소속 모임 및 단체	평균점수	표준편차
계모임	76.38	20.059
자선/봉사모임	75.00	21.004
연구모임	72.50	28.123
4-H	69.33	30.869
청년회	67.85	26.726
작목반	64.13	26.995
향우회(동향사람모임)	62.50	29.880
반상회 등 이웃모임	62.50	17.677
농축수산업협동조합	61.95	32.743
한농대 동문(동창)회	53.75	30.121
농업경영인연합회	44.73	33.931
농민회	37.50	43.30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5.00	35.355
기타	80.00	20.916

4. 농업·농촌 전반에 관한 인식

가. 개인적 차원에서의 농업·농촌 전반에 관한 인식

개인적 차원에서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으로는 ①농업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 ②자녀에게 농업 승계에 대한 의향, ③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에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한농대 전공심화과정 졸업생들은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응답자의 38.3%가 자신을 ‘농업전문경영인’이라고 인식하였다(Table 27).

Table 27. The self-assessment of graduates as a farmer (단위 : 명, %)

농업인으로 자기 평가	빈도	퍼센트
영농후계자	31	29.0
청년농업인	27	25.2
농업전문경영인(농업CEO)	41	38.3
기타	8	7.5
전체	107	100

그러나 이는 연령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신을 ‘영농후계자’나 ‘청년농업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농업전문경영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Table 28).

이러한 현상은 영농경력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농경력이 1년 미만일 경우 자신을 ‘농업전문경영인(28.6%)’이라기보다 ‘영농후계자(52.4%)’로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영농경력이 5년 이상 정도 될 즈음부터는 자신의 농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농업전문경영인’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Table 29).

Table 28. The self-assessment of graduates as a farmer by age

(단위: 명, %)

연 령	영농후계자	청년농업인	농업전문경영인 (농업CEO)	기타	전체
20대	21(30.4)	22(31.9)	21(30.4)	5(7.2)	69(100)
30대	10(27.8)	5(13.9)	18(50.0)	3(8.3)	36(100)
40대	0(0.0)	0(0.0)	2(100)	0(0.0)	2(100)
전체	31(29.0)	27(25.2)	41(38.3)	8(7.5)	107(100)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음.

Table 29. The self-assessment of graduates as a farmer by farming years

(단위: 명, %)

영농경력	영농후계자	청년농업인	농업전문경영인 (농업CEO)	기타	전체
1년 미만	11(52.4)	4(19.0)	6(28.6)	0(0.0)	21(100)
1년 이상 ~5년 미만	14(25.5)	17(30.9)	18(32.7)	6(10.9)	55(100)
5년 이상 ~10년 미만	5(20.8)	6(25.0)	13(54.2)	0(0.0)	24(100)
10년 이상	1(14.3)	0(0.0)	4(57.1)	2(28.6)	7(100)
전체	31(29.0)	27(25.2)	41(38.3)	8(7.5)	107(100)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음.

한편 “향후 자신의 자녀에게 농업을 승계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9.8%가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이들은 자신이 가꾸어 놓은 영농기반을 미래에 자녀가 이어받기를 원하거나, 농업이 다른 직업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하여 자식이 이어나가기를 원하였다. 한편 응답자의 40.2%는 자녀의 농업 승계에 대해 부정적

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매우 상반되게 나타난다. 농업이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부정적인 이유가 한 축을 이루었으며, 자녀의 직업은 자녀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다른 한 축을 이루는 등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0)..

Table 30. Yes or no of the agricultural succession of children

(단위 : 명, %)

자녀의 농업승계	빈 도	퍼센트
자녀의 농업승계를 원한다	64	59.8
자녀의 농업승계를 원하지 않는다	43	40.2
전체	107	100

끝으로 농업경영 상의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영농자금 부족(15.3%)’이나 ‘농산물 가격하락(14.3%)’, ‘유통/판로확보 어려움(10.9%)’, ‘농자

재 가격인상(9.3%)’ 등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

고 있는 ‘영농인력 부족(12.8%)’ 문제도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다(Table 31).

Table 31. Difficult problems in agricultural management(multiple responses)
(단위 : 명, %)

농업 경영 상의 애로사항	빈도	퍼센트
영농자금 부족	49	15.3
농산물 가격하락	46	14.3
영농인력 부족	41	12.8
유통 및 판로확보의 어려움	35	10.9
농자재 가격인상	30	9.3
농지 및 어장기반의 부족	24	7.5
소득감소 및 적은 소득	24	7.5
영농정책 및 제도의 미흡	24	7.5
영농 경험의 부족	20	6.2
부모와의 갈등	11	3.4
신기술 부족	9	2.8
직원(동료)과의 갈등	5	1.6
기타	3	0.9
전체	321	100

나. 사회적 차원에서의 농업·농촌 전반에 관한 인식

사회적 차원에서의 농업·농촌에 관한 인식으로는 ①농업 유지 및 발전 정책, ②향후 농업·농촌의 역할 및 기능, ③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있어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가격정책(20.7%)’과 ‘판매/소비촉진 정책(20.7%)’ 등 경제적인 부문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 외에 ‘각종 기계화지원정책(10.7%)’이나 ‘시설첨단화(10.3%)’도 중요한 측면으로 선택하였다(Table 32).

한편 향후 농업·농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응답자들은 모든 문항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식량안보(86.07점)’, ‘환경/생태계 보전(82.99점)’, ‘농업/농촌 어메니티 보전(80.46점)’ 등에 대해서는 향후 그 역할 및 기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Table 33).

Table 32. The policy for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agriculture (단위 : 명, %)

국내 농업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필요 요인	빈도	퍼센트
가격정책(수매, 가격보장 등)	66	20.7
판매 및 소비촉진 정책	66	20.7
각종 기계화지원정책(논/밭/과수농업 등)	34	10.7
시설첨단화	33	10.3
기본소득보장정책(직접지불처럼 월급형식으로 기본소득 제공)	29	9.1
체험/교육/치유농장지원정책	21	6.6
각종 직접지불금제도(쌀농업직불, 친환경직불 등)	16	5.0
가공사업육성지원정책	16	5.0
수출촉진정책	11	3.4
친환경농업육성정책	9	2.8
친환경학교급식정책	5	1.6
기타	13	4.1
전체	319	100

Table 33. The importance to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next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단위 : 점)

향후 농업·농촌의 역할 및 기능	평균점수	표준편차
식량안보	86.07	19.893
환경/생태계 보전	82.99	20.886
농업·농촌 어메니티 보전	80.46	20.529
일자리/소득창출	76.44	22.581
재해경감	70.84	23.071
국토균형발전	70.18	20.046

끝으로 졸업생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문화 및 여가시설의 부족(18.1%)’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와 더불어 농촌사회의 심각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16.2%)’와 이에 비해 제대로 충족되고 있지 않은 ‘보건/의료 문제(8.6%)’ 등도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Table 34)

Table 34. The difficulties of the community life (단위 : 명, %)

지역사회에서의 어려움	빈도	퍼센트
문화 및 여가시설 부족	57	18.1
고령화 문제	51	16.2
보건/의료문제	27	8.6
자녀양육	26	8.3
복지시설(제도) 미흡	26	8.3
결혼	25	7.9
교육시설 부족	24	7.6
지역사회(주민)과의 갈등	18	5.7
도로/교통/통신 문제	17	5.4
환경오염(토양/수질/대기오염 등)	14	4.4
빈부격차	12	3.8
다문화	6	1.9
금융서비스	3	1.0
기타	9	2.9
전체	315	100

IV. 결론

지금까지 한농대 전공심화과정 졸업생을 중심으로 이들의 영농활동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청년농업인들 영농활동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의 규모화를 통해 농업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문영농에 힘쓰고 있다. 평균 연령 28.3세인 전공심화과정 졸업생들의 영농의 규모화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농촌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규모화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세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모세대가 구축한 기반을 중심으로 경영능력 향상에 노력하며 지역농업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둘째, 기술혁신을 통한 가치창조 농업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최근 농업·농촌 환경 변화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트렌드로써 한농대 졸업생 출신의 청년 농업인들이 핵심적·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지향함과 동시에 또한 판매/유통망 확보, 품질 및 기록관리 등의 경영개선을 통해 농업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공심화과정 외에도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연구소나 한농대 지도교수와 의 끊임없는 교류, 해외연수 및 선진농가 방문, 대학원 진학 등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동문회 중심의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농업 발전 견인에 힘쓰고 있다.

셋째, 위와 같은 이들의 노력은 각종 인증 및 수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107개의 사례 중 각종 친환경 인증 및 우수농가 수상을 한 경우는 53개(49.5%)로 매우 높은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무농약 인증, 무항생제 인증, 우수농산물(GAP) 인증, HACCP 인증 등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환경을 중시하는 의식이

확산되어 가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세태를 반영했을 때, 이러한 친환경 농업 지향의 고품질 농식품 생산과 인증에 대한 노력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상과 같이 한농대 전공심화과정 졸업생들은 농업경영 현장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 고등교육기관에서 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한농대 졸업생들의 역할은 향후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있어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학교 측의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졸업생들이 한농대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다양한 동문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조사에서는 졸업생들이 '동문 네트워크'를 한농대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은 것에 비해 참여도는 다른 모임/단체활동 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지원 및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졸업생들이 농업경영 시 애로사항의 주된 요인으로 꼽고 있는 '영농자금 부족'이나 '유통/판로확보의 어려움' 등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고민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V. 적요

본 연구는 한국농수산물대학 전공심화과정 졸업생들의 영농활동 실태에 대한 분석이다. 분석 결과 한농대 전공심화 졸업생들의 영농활동 특징으로는 규모화 전략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문영농에 힘쓰고 있다. 또한 다양한 농업기술혁신 전략을 통해 가치창조 농업(예를 들면, 친환경농업, 신기술의 적

극적 도입, 지속적인 연구 활동, 지역사회 활성화에 건인, 전문가 및 동문 등과 적극적인 네트워크 활동 등)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다양한 인증 및 수상(무농약 인증, 무항생제 인증, 우수농가 수상, 우수농산물(GAP), HACCP 인증)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전문 고등교육기관에서 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한농대 졸업생들의 역할은 향후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있어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학교 측의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VI. 참고문헌

1. 라승용. (2015).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미래.” 한국응용근층학회 추계학술발표 자료집.
2. 박민선. (2008). “한국농업의 구조변화: 2005년 농업총조사 원자료분석을 중심으로.” 농협경제연구 37: 1-28.
3. 유학열. (2013). “농업 6차산업화의 필요성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월간국토 384: 29-35. 국토연구원.
4. 한국농수산물대학 20년사. (2017). 한국농수산물대학
5. 황인욱, 이소영, 주진수, 양주환, 김종숙. (2017).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성공 특성 및 영농수준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연구 25(1): 21-45. 한국지역사회학회.